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197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31)

동쪽 대맥의 큰 줄기 오름의 진면목 드러내

<한라대맥 제2구간 탐사완료 탐사기간 : 2003년 11월8일~2004년 5월8일>

입력 : 2004. 05.28. 00:00:00



▲오름의 진가를 보여주는 서거문오름. 식나무군락 등 다양한 식생을 비롯하여 지질 역사 등 다방면의 연구가치가 높은 보물창고이다.

△오름마다 지질·생태 등 다양한 가치 확인

총 5구간으로 계획된 한라대맥 탐사가 제2구간을 지나왔다. 제주도의 동서 장축을 따라 동쪽끝 우도봉에서 서쪽끝 차귀도까지 진행될 「한라대맥을 찾아서」 탐사 중 이제 5분의 2를 마무리한 것이다.

한라대맥 제2구간 탐사는 송당마을의 아부오름에서 출발하여 5·16도로변 물오름까지 총 40개 오름에 대해 실시됐다. 편의상 북코스(아부오름~절물오름)와 남코스(성불오름~물오름)로 나눠 실시된 2구간 탐사는 2003년 11월 8일부터 지난 5월8일까지 만 6개월이 걸렸다.

지난해 9월20일 우도봉을 기점으로 시작된 한라대맥 탐사는 앞으로 제3구간인 한라산국립공원 내 오름에 대해 실시하고, 이어 제4구간(붉은오름~병악)·제5구간(새별오름~차귀도)까지 씬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라대맥 제2구간은 해발 300m에서 800m사이 분포하는 40개의 오름과 송당·교래 등 중산간 마을, 국영목장인 소장과 산장, 계곡과 하천 등을 포함하는 공간이다.

탐사단은 먼저 북코스를 탐사했다. 아기자기한 송당마을내 오름군에서 출발하여 조천읍지역의 서검은오름, 부대·부소오름 등을 거쳐 제주시지역 봉개 민오름과 절물오름까지 모두 23개오름을 지나왔다.

국영목장 1소장 중심지였던 거슨새미 안돌 밧돌 체오름 거친오름의 공간과 동쪽으로 이어지는 민오름 도리미 비치미 개오름 등은 동부지역 오름군의 특징을 인상적으로 대변하면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자아냈다.

이어 선흘2리 서거문오름은 분화구 내부가 복잡하고 많은 양의 용암류를 흘러보낸, 구룡농주의 풍수가 깃들어있는 신비의 오름으로 집중 조명을 받았다. 특히 분화구내 희귀한 양치식물과 각종 이끼류와 상록활엽수 등이 뒤엉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함은 물론 식나무와 붓나무의 국내 최대 자생지로 확인됐다.

그리고 4·3 당시 양민이 희생된 수직동굴 거멸창과 일본군의 주둔터 등 다방면에서의 연구가치가 매우 높은 보고였다.

그리고 절물오름 봉개민오름 지그리 죽은지그리 바농오름 새미오름으로 이어지는 일직선상의 한라산 화산구조선 또한 북코스에서의 인상적인 요소였다.

남코스 탐사는 동부관광도로 남쪽에 위치한 성불오름에서 시작됐는데 천미천과 가시천 서중천 송천 등을 끼고 자리잡은 오름 17개가 탐사대상이었다. 게다가 광활한 초지대에서 형성된 녹산장과 산중호수가 있는 오름 등이 포함돼 있어 가는 곳마다 탐사단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히 물영아리와 물чат오름의 경우 분화구에는 언제나 물이 있어 습지 동·식물이 공존하는 귀중한 자원임을 인식케 하였다.

한라대맥 제2구간의 40개오름은 동부지역(동북·동남부 포함)의 지세를 만들며, 저마다 독특한 지질과 식생, 경관미와 가치 등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오름은 최근 PATA로부터 제주관광테마로 공식 인정받았다. 물론 제2구간

오름들이 제주도민들의 삶과 땀해야 땀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임은 당연하다.

/특별취재팀

[전문가 탐사 소감/식생분야] 풍부한 자원식물 발견 성과

제2구간은 해발 약 301m에 위치한 아부오름에서 해발 750m인 물오름까지 약 40여개의 오름을 포함하는 구간이며, 식생대로 구분하면 아부오름, 백악이, 좌보미오름 등 대표적인 초원오름과 서거문오름, 절물오름, 물чат오름 등 수림으로 이루어진 오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발 약 400m를 지나면 오름의 식물들은 억새와 같은 초본류가 우점하는 초원지대에서 동백나무, 후박나무와 같은 상록활엽수림이나 서어나무, 졸참나무 등이 우점종으로 존재하는 낙엽

활엽수림으로 바뀌고 있다

한라산의 식물분포에서 해발 700m이하의 상록수림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활엽수림의 방목과 목축을 위한 불농기로 대부분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방목이 줄어들고 나무심기와 산림 보호가 엄격해진 196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본 모습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구간에서 획기적인 발견은 서거문오름 주변 경관과 식물이라고 생각된다. 서거문오름 분화구와 계곡에 자생하고 있는 상록활엽수와 쇠고사리 같은 희귀한 양치식물 및 함몰분화구에 자라는 각종 이끼류 등은 지형적 여건으로 풍부한 공중습도와 따뜻한 기후 등의 조건으로 태고적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 분화구는 식나무와 붓순나무의 국내 최대 자생지이며 식나무와 붓순나무 모두 정원수, 약용 절화용 등으로 대단히 이용가치가 풍부한 자원식물로서 이 수종의 유전자원 보존과 개발은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경관적 가치와 동식물의 분포지로서 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보호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된다.

<강영제 탐사위원(난대산림연구소)>

[전문가 탐사 소감/동물분야]야생동물의 보금자리

제2구간 오름들이 서서히 계곡들 사이에 자리잡으면서 '하천과 오름', '물과 생명'이 만나게 된다. 천미천, 가시천, 서중천, 송천 그리고 늪을 형성하고 있는 봉개 민오름, 붉은오름과 건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물이 출렁이는 물영아리, 물참오름, 동수악 등 수자원을 보유하는 곳이 많다.

습지 분화구는 생태학적, 경관적, 자원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는 습지로, 저마다 독특한 생태환경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습지 분화구의 변천과정을 규명해낼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된 곳이다. 특히 물영아리는 지난 2000년 12월 5일자로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보다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이용방안의 표준 모델로 이용되고 있다.

한라산의 계곡이 급경사 구조로 물이 흐를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아서, 중산간의 오름 습지는 야생동물에게 물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준다. 다른 공간에 비해 개구리류, 뱀류, 조류, 노루 등의 출현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마실 물과 먹이자원, 포식관계, 다양한 식생, 은신처와 번식터 등을 포함한 생물종간의 상호작용이 유기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분화구내의 습지형성과 육지화는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풍화와 퇴적, 식생천이, 기후조건 등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위적으로 저수량을 조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저지대의 습지 매립, 하천의 난개발, 생활하수 및 오수의 증가로 물에 의존해야 하는

생물종이 위기에 놓여 있음을 놓고 볼 때, 습지 오름이 차지하는 생태적 비중은 매우 크다.

<김완병 탐사위원(제주자연사박물관)>

[전문가 탐사 소감/인문지리분야]山水의 상호유기적 관계 통찰

제2구간에는 남북 코스별로 굽적굽적한 오름들이 자리잡고 있음은 물론, 그것들은 저마다 독특한 산세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오름이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만하다.

그러나 본 탐사위원에게 각 코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오름을 한 개씩 가려내라고 한다면, 남쪽 코스에서는 원형 분화구에 물이 가득 차 출렁거리는 물чат오름이고, 북쪽 코스에서는 분화구의 내부가 아주 복잡하고 동시에 많은 양의 용암류를 흘러보내며 용암계곡을 형성해낸 서거문오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더불어 물чат오름이 포근한 가슴을 지닌 여성에 비유한다면, 서거문오름은 강한 핏줄기를 드러낸 남성에게 비유할 수 있을 듯 하다.

이외에도 제2구간에는 특징적인 오름들이 많다. 가령 오름 자체가 빼어난 경관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는 아부오름을 비롯하여 체오름, 산굼부리, 부대오름, 모지오름, 따라비오름, 붉은오름 등을 들 수 있고, 오름 정상에 섰을 때 주위의 빼어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오름으로서는 좌보미오름, 백약이오름, 거친오름 및 소록산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오름 분화구에 습지가 형성돼 있었거나 현재도 습지가 형성돼 있는 오름으로는 붉은오름, 물영아리, 물чат오름이 있으며, 오름 기슭에서 샘이 솟아나는 오름으로는 거스세미, 밧돌오름, 절물오름, 성불오름 및 궤팽이오름이 있다.

제2구간을 장식하는 오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잊어서는 안될 사실은 이들 오름도 오랜 세월 동안 제주주민들의 경제활동 속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광중 탐사위원(제주교대 교수)>

[전문가 탐사 소감/인문지리분야]살아있는 오름의 전설

이번 탐사의 풍수적 역할은 동양의 지혜인 산수음양(山水陰陽)의 풍수적 관찰을 통해서 개발이란 명분에 밀려 신음하는 자연환경학적 생태의 보고인 제주의 생명체를 인간의 신체에 비교하여 현실적으로 파생되는 문제들을 제시하고 동시에 정신적·문화적 의미를 재조명하는데 있었다.

제2구간 탐사는 자연적 순환의 의미를 되새겨주었다. 그것은 오름과 하천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환되는 산과 물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직접 통찰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동쪽 라인을 구성하는 오름군이 일정한 공간을 유지하면서 동쪽의 아미형 지세와 맞물려 주민들의 생활과 정신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크고 작은 하천들 중에서 천미천의 심원한 물줄기는 단연 동쪽 지리의 성정을 매듭짓는 대동맥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풍수에서 말하는 산과 물은 별개의 것이 아니며 바로 인간과 함께 끊임없이 교환되는 본체론적 생명체의 근원임을 실감케 한 것이다.

마치 하늘의 성신을 모아 놓은 듯 동편의 오름들은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였다. 제1구간에서 동쪽 오름의 가치와 의미를 찾았다면 제2구간에서는 동쪽의 지세를 형성하는 변화와 생명력을 보았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이제 오름은 오름으로서의 오름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있는 소중한 땅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생명의 연속적인 과정임을 깨달았고 원망성(遠望性)을 위주로 조형미와 색채의 조화성이 뛰어난 오름들의 배치는 21세기 제주가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무한한 잠재력으로 한층 가깝게 다가왔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각인케 한 중요한 탐사였다고 자부한다.

<신영대 탐사위원(제주관광대 교수)>

[전문가 탐사 소감/인문지리분야]다양한 형태의 오름들

송당 아부오름에서부터 5:16도로변 물오름까지의 제2구간은 탐사구간 중에서도 그러하지만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오름이 집중 분포하는 지역이다.

제2구간을 지나오면서 40개의 오름을 탐사하였으며, 이 중에는 하나의 폐쇄된 원형 굽부리(분화구)와 원추형의 화산체로 이루어진 단순한 형태로부터 화산체의 한쪽 사면이 붕괴되어 반원형(또는 초승달형) 또는 매우 복잡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까지 오름들은 저마다 다양한 모양을 자랑하였다.

대부분의 오름들은 송이로 구성된 반면 정상부에 용암이나 스파터가 분포하는 오름도 새로이 관찰되었으며, 어떤 오름들은 많은 시간동안 비와 바람에 침식되어 원래의 형태가 많이 변형되

기도 하였으나 서거문오름과 체오름은 오름 산체에 가까이 갈수록 격렬한 소리와 함께 검붉은 가스연기와 화산쇄설물을 분출하는 불기둥과 해안선으로 많은 용암을 유출시킨 화산활동이 바로 어제 끝나고 생성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오름들은 자기가 가진 다양한 모양과 지질을 약간씩 보여주면서 과거 자신이 멋있게 활동하였던 시절과 이후 세월의 풍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보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내가 지나온 오름들 각각에 대하여 화산활동의 진행과정, 화산활동이 끝난 직후의 초기 오름의 형태에 관한 재구성, 침식작용과 용암 또는 퇴적물의 피복과 같은 현재의 모양으로 변형되기까지의 과정 등에 관한 조사에 대한 염원을 품어본다.

<정차연 탐사위원(농업기반공사)>

◇제2구간 40개오름 탐사

북코스(23개오름)

▷아부오름-좌보미-백약이오름-민오름-도리미-비치미-개오름-거슨새미-안돌-밭돌-체오름-거친오름-서거문오름-부대오름-부소오름-조천민오름-까끄레기오름-산굼부리-바농오름-죽은지그리-지그리-봉개민오름-절물오름

남코스(17개오름)

▷성불오름-모지오름-영주산-모구리-따라비-소록산-대록산-물영아리-여문영아리-구두리오름-감은이오름-칠탄오름-붉은오름-괘평이오름-넙거리오름-물찻-물오름

특별취재팀/ 한승철부장(기획특집부)

강시영·이윤형차장()

표성준(편집부)·강경민기자(사진부)

후원 : 한국언론재단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